

1997

정
JUNG

신
SHIN

혜
HYE

의

춤

DANCE
PERFORMANCE

1997

정
JUNG

신
SHIN

혜
HYE

의

춤
DANCE
PERFORMANCE

일시: 1997. 10. 21(화). PM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후원: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

(인사말)



새벽녘, 찬 기운에 눈을 뜨면 어스레한 주위는 낯설게 펼쳐져, 시간을 헤아릴 틈도 주지 않은 채 막연한 불안으로만 가슴을 누르면 그런 기억처럼 ……, 내 존재감을 천천히 짚어 보곤 가을과 새벽과 방 안임을 인지하던 그런 습성처럼, 어쩌면 지금 저는 동이 트길 기다리는 그 새벽녘의 출연대기자인지 모릅니다. 수면 위로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 일제히 무대에 뛰어 올라 춤을 추고자 그렇게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

아직은 덜 익고 미숙한 그래서 풋하게까지 여겨질 스물 여섯으로는 힘겹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서야 걸음을 배웠던 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며 다독이지만, 한 편으로 작은 의미를 담았을 뿐이라 이해해 달라 양해를 구해 보는 것조차도 다시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길 바라는 이기(利己)일 뿐이라 여겨져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하지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질그릇에 담긴 음식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하고 또 다시 바라다면 그 것마저 욕심일런지요.

이러저러한 마음을 끄집어내 보지만, 표현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건 언제나 사랑일 것입니다.

제게 서는 법과 걷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그래서 세상에 첫 걸음을 밟을 수 있도록, 깊은 눈빛으로, 때론 엄한 가르침으로 용기와 위로와 질책을 주시던 김명자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은 너무도 무한해 가슴에 채 담을 수 없도록 넘쳐흐렀음을 새삼 깨달으며 제가 받은 만큼 드릴 수 없는 미약함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생각만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던 그 간의 든든함으로 이 공연이 준비되었음에 저는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또한 김은이 교수님, 춤추고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자갈을 헤쳐 길을 다져 나가는 법도 필요하리라고 무언으로 일깨워 주신……, 그 마음 가슴에 담아 더 크고, 더 단단한 저를 만들도록 다른 형태의 사랑을 주셨음에…… 진정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꿈’이란 지나가는 것이 아닌 머무는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움 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안에 조심스런 첫 발을 내딛어 봅니다.

1997년 10월 21일

정 신 혜

Program

1 부 - 승 무 (이매방류)

▶출 연 / 정신혜

2 부 - 오브제(Obj'e't)를 위한 오부제(五部題)

▶안 무 / 정신혜

▶출 연 / 김용철 <특별출연>

박성국

배성철

▶연 출 / 이화석

▶대 본 / 조주현

▶미 술 / 백성준

▶사 진 / 문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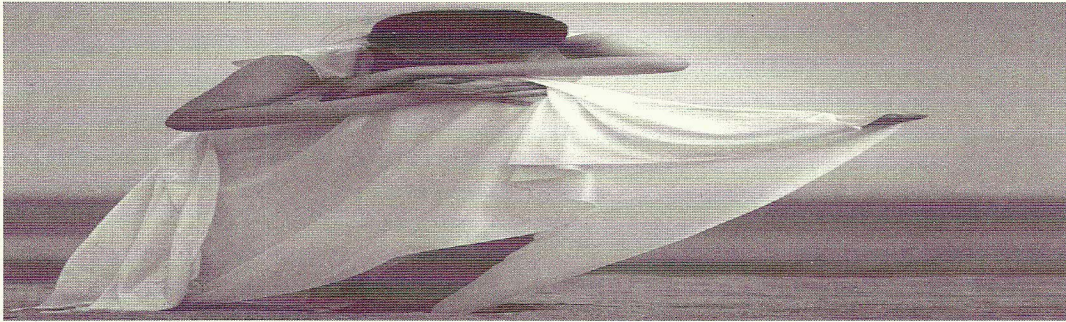
▶디자인 / 이지훈

▶의 상 / 안젤라Moon

▶촬 영 / 김성만

▶음 악 / 김덕수패 난장(A,New Horizon), PURI

제2부 - 오브제(obje't)를 위한 오부제(五部題) -



- 작가 의도 -

개념 미술의 한 사조(思潮)쯤으로 인식되던 오브제(obje't)가 현대에 이르러 장르를 불문하고 응용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갖가지 사물들이 작품이 되고, 또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물(obje't)이 되는, 주드(Donald Judde)로 비롯되었던 오브제화 작업을 서툴게나마 춤에 응용코자 이번 무대를 마련해 보았다. 자칫 맹목적인 차용으로 비치진 않을까 우려도 해보지만 기우이길 바라며, 테마로 잡은 '꿈'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안무 의도 -

작품 「오브제(obje't)를 위한 오부제(五部題)」의 일관된 이미지는 꿈이다. 정형화된 틀을 깨면 일상은 자잘한 꿈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 믿는 까닭에, 하나씩 떼어 구분하듯 들여다보려는 마음에서이다.

그런 확인이 침잠(沈潛)되어 있던 오래 전의 감성들을 부상시키는 건 아닌지, 그래서 죄다 흐트러 놓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꿈꿔 왔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잃고, 잊었던 추억의 되새김은 어떤 형태로든 거쳐야 할 통과외레라 생각하며 나의 꿈을 들여다보려 한다.

내가 기억하는 어른들과 나의 유년, 성장기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잊고 또 잃어버렸던 꿈에 대해 다섯 개의 작은 이야기와 각각의 사물들로 하나를 만들어 보았다. 시간이 또 얼마큼 흘러 다시금 반추할 수 있는 흔적으로 남아 있길 바라며

Prologue 내가 기억하는, 꿈들에 관한 얘기를 한다.

I. 쏟아진다

내겐 믿음이 있었다.

오래 오래 전, 화롯불 둘레엔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모여 앉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만들어 주던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있었을 거라고..... ,

채 타지 않은 빨간 재가 하늘로 오르면, 그 하늘의 촘촘한 별들이 땅으로 지붕으로 가슴으로 쏟아져 내리는 옛날 옛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

나는 굳게 믿었다.

II. 내가, 날다

꿈은, 먹는다고 표현했다.

그 느낌만으로 감격했던 유년의 나는 항상 동화 속의 등장 인물이곤 했다. 램프를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던 그 유년 속에서 나는 양탄자를 타고 그렇게 훨훨 꿈을 먹기 위해 날아가곤 했다.

그러곤, 누군가 내게 주문을 외워 주기 전까지..... , 나는 그 꿈에서 오래도록 안주(安住)하고 있었다.

III. 흩뿌린다

언제였을까 , 꿈은 쫓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건

서툴게 사랑을 짐작하고 가상의 대상을 만들던,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꾸던 그 소녀적이 어느 즈음 지나가고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현실과의 괴리에 주춤거리고 있었다.

그 증압은 몹시도 힘겹고 버거웠으며,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에 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여지껏의 많은 꿈들이 내게서 조금씩 흩어져 현실 속으로 날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프고, 아프게

IV. 맴돈다

설득력 없는 가설은 지속될 수 없다.

그렇게 뇌까리곤, 더 이상 꿈을 만들지 않았을 때, 나의 침대는 영화의 한 장면쯤에 포함되어 단지 앨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과거형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인식이 현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스물 언저리를 자꾸만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V. 그리고, 선다.

거울 앞에서 무심히 나를 본다.

거울에 비친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내가 함께 투영되어 서 있을 뿐이다.

거기 서 있는 나에게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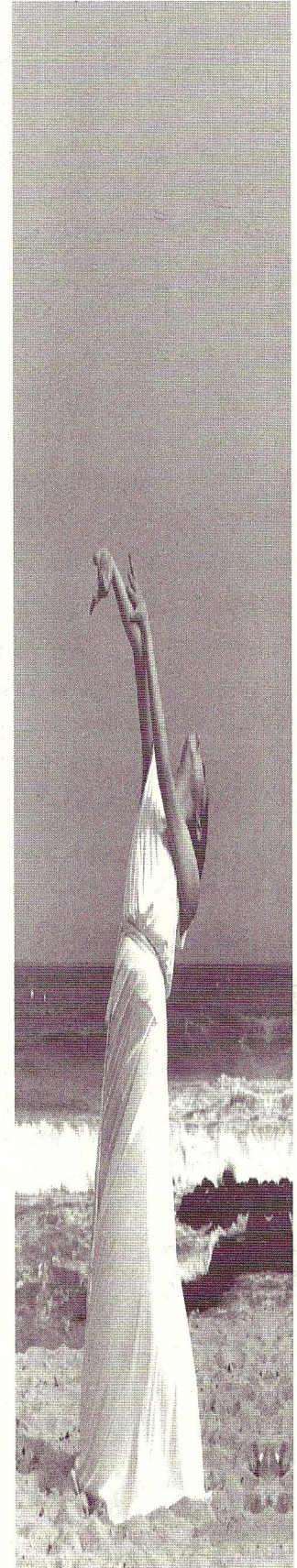
꿈을 잃었는가..... , 이전의 나, 그 이전의 내가 웃고 있다.

꿈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이라 속삭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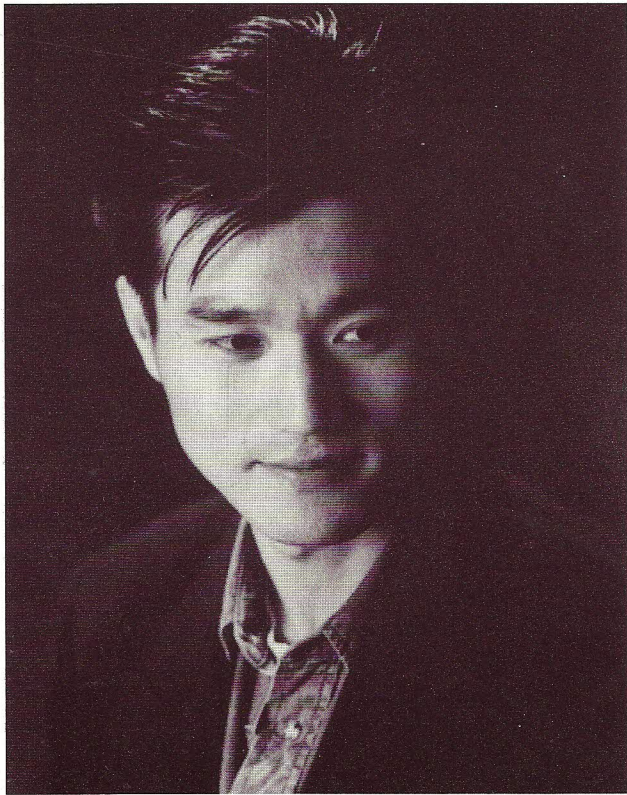
주섬주섬 일상을 챙겨 몸을 돌리며 나는 나에게 대답한다.

그 꿈들을 찾기 위한 휴식이었을 거라 이해해 달라 , 하고

epilogue..... 그러곤, 나의 꿈은 일상이 되었다.



춤추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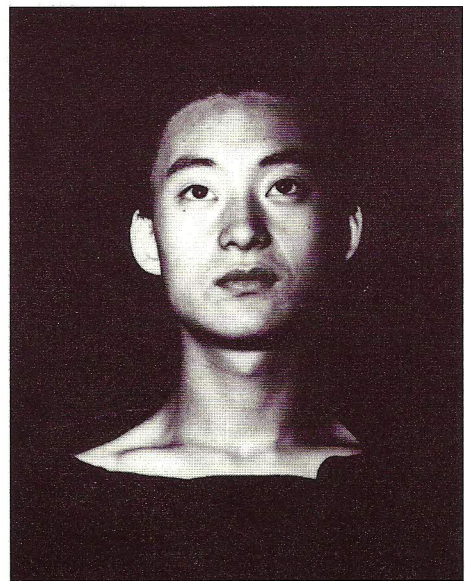
김용철 (Kim Yong-chul) - 특별출연

- 계명대학교 무용학과, 세종대학원 졸업.
 - 서울시립 무용단원 역임.
 - 계명대학교, 경북실전 강사역임.
 - 95. 대구 무용제 안무상.
 - 96. 서울 국제 무용제 안무.
 - 97. 서울 미래춤 비엔날레 특별상.
- 현 : 장유경 무용단 지도위원.
다움 무용단 대표.



박성국 (Park Sung-Kook)

- 계명대학교 무용학과 재학
- 97. 대구무용제 연기상



배성철 (Bae Sung-Chul)

- 계명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95. 동아무용콩쿨 금상